

산조, 가장 현대적인 가야금 음악 장르

<경기가야금양상블 제15회 정기연주회>

“Sanjo Addiction 새 옷 입은 가야금산조 II”

김 은 하

<경기가야금양상블>이 현재 연주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가야금 양상블팀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우리음악의 현대화’에 대해 2000년 창단 이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실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창단 초기 경기민요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지난 18년간 국악계의 창작음악 발전에 기여해 온 <경기가야금양상블>이 2017년과 2018년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젝트가 우리 전통의 가야금 산조에 ‘새 옷’을 입혀 가야금양상블을 위한 현대 산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모두 10인의 가야금 명인의 유파에 따른 가야금 산조를 국내·외 유명 현대 작곡가들이 새롭게 해석, 창작하는 가운데, 2017년 12월 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경기가야금양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 “산조탐닉”>에서는 김병호류, 서공철류, 김죽파류, 성금연류, 강태홍류 등 5가지 유파의 가야금 산조에 대해 5명의 작곡가(류형선, 김대성, 나효신, 김광희, 박영란)가 창작한 작품들이 소개되었고 이 음악들은 경기가야금 양상블의 음반 제4집 《산조탐닉(散調耽溺)》으로 제작, 발매되었다.

작년에 이어 2018년 12월 2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 <경기가야금양상블 제15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지난 해 소개된 유파 이외 김운덕류, 최옥삼류, 유대봉제 백인영류¹⁾, 안기옥류, 황병기류에 의거한 다섯 작

1) 유대봉은 가락을 체계화하여 전수하지 않아 그가 사망한 후 인멸될 상황에 놓였는데 그의 제자 백인영이 유대봉류 산조를 연주, 부활시킴으로써 그의 가야금산조를

품이 발표되었다.

(연주프로그램)

1.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한 <산조변형(Sanjo Variations)에 대하여>
- 4대의 25현금을 위한 곡, 작곡: Christopher Shultis (미국)
2.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테마에 의거한 <4대의 가야금을 위한 “황룡의 꿈”>
- 1대의 12현금과 4대의 25현금을 위한 곡, 작곡: 이복남 (한국)
3. 유대봉제 백인영류 가야금 산조 테마에 의거한 <심향(sinhyang, 尋響)>
- 1대의 법금과 3대의 25현금을 위한 곡, 작곡: Nakamura Noriko (일본)
4. 안기옥류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한 <백두산의 메아리(Echo vom Baekdusan)>
- 4대의 25현금을 위한 곡, 작곡: Helmut Zapf (독일)
5. 황병기류 가야금산조 가락에 의한 <물결따라 흐르는 선율처럼>
- 4대의 산조가야금과 핸드드럼을 위한 곡, 작곡: 나효신 (미국)

2017년과 비교하여 올 해 국제적으로 경력이 화려하고 왕성하게 작곡활동을 하는 외국인 작곡가들의 참여가 훨씬 높은 점이 ‘국제성’ 또는 ‘현대성’을 어느 정도 증빙하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위 작곡가들이 본 연주회의 취지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이를 작품에 반영했느냐일 것이다.

작곡가들은 각기 다른 산조유파의 음악을 바탕으로 창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성은 대략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두고 평가될 수 있다.

- 1) 가야금산조의 명인들의 류(流)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루어진 창작인가
- 2) 가야금 산조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작품에 구현했는가
- 3) 가야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음향적 이해가 작품에 묻어나는가

위 기준은 작곡가들로 하여금 전통 산조장단을 꼭 사용할 것을 의미하지

유대봉제(弟) 백인영류라 부르게 되었다.

않으며 작곡가들이 자신만의 장단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작곡가들이 담당한 각 산조 유파의 특징을 파악하여 구체적 장단이나 모티브가 아니더라도 곡의 전개 및 운영 차원에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작곡가는 또한 ‘산조’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지 악곡에 나타내야 한다. 당연히 서양음계 또는 기법과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역시 자신만의 산조 개념이 확보되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작품에서 김윤덕류 산조의 음향적 특징인 깊은 농현(弄絃), 엇박과 복합적 리듬구조 및 변화가 돋보이는 장단의 기운은 전혀 없이 단순한 모티브를 ‘세그먼트(segment)화’하여 미니멀적으로 중첩시켰고 이와 같은 소위 ‘모듈화 작업’의 실행으로 ‘풍류’의 맛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음향기교적 효과만 부각되는 돌연체가 제시되었다.

네 번째 작품 <백두산의 메아리>도 마찬가지로 산조의 악장들을 전체로 보고 세부 악장들로의 전개과정에서 섬세하게 변화되는 요소들을 발견하지 않으면서 이를 음향적으로 이끌고 갈 주체인 가야금이라는 악기의 음향에 침잠하지 않아 창작의 근거가 되어야 할 산조유파와는 상관없이 작곡된 작품이다. 작곡가가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인 김창조의 제자인 안기옥이 월북하여 활동한 명인인 점을 감안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작곡가가 표상하는 백두산의 기상과 메아리, 한민족 공동체 그리고 아리랑 모티브는 음악, 즉 산조유파와 맥을 같이 하지 않으며 가야금을 다룰 줄 모르고 음향의 특징을 알지 못하는 한 작곡가가 25현금과 타악기를 위해 서양기법 위주로 쓴 표제적 작품 그 이상이 아니다.

동양문화권이 아닌 두 작곡가들에 비해 일본인 작곡가 노리코 나카무라는 거문고에 대한 오랜 시간의 이해와 일본 전통 악기 고도를 위해 작품을 쓴 경험이 많은 까닭에 악기가 표현해낼 수 있는 음향의 흐름과 음색의

다양성을 섬세하게 제시하며 악곡을 전개시켰다. 도입부에서부터 작곡가가 그려내고자 한 아침의 기운, 해가 떠오르는 바닷가 풍경, 물결 위로 드러나 퍼져가는 햇살과 색채의 묘사가 특유의 글리산도 효과와 함께 다채롭게 펼쳐졌다. 세 가지 글리산도 효과로 빛어내는 오렌지빛깔, 금빛, 은빛의 선율은 햇살 아래 드러나는 과도의 물결과 변화무쌍한 색깔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묘사적인 반면, 정작 산조의 흐름과 구성에서 자유분방한 선율과 즉흥성으로 대표되는 유대봉의 가야금 산조의 특징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복남의 <황룡의 꿈>은 다스름,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늦은 자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선율은 무겁고 절제된 농현을 가지며 긴장과 이완의 대비가 뚜렷하고, 가락의 짜임새가 치밀하여 구성미가 돋보이는 최옥삼류 산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후반부 자진모리 부분에서 무장단으로 흐르며 소위 “말 뛰는 가락”, “말이 제각기 흩어지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가락”으로 묘사되는 최옥삼 가야금 산조의 백미인 흐름을 잘 살려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작곡가는 이를 만주별판을 달리며 삼국통일을 염원한 고구려인들의 기개로 표현해 내었다. 유파의 취지에 충실하면서 고난도 리듬기법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에너지 넘치는 음향으로 재구성하였다는 차원에서 작품전개가 매우 설득력 있었다.

노리코 나카무라의 작품에서 가야금이라는 악기 음색과 음향색채의 변이를 구체화시켜 위 평가기준 세 가지 중 악기에 대한 음향적 이해가 구현되었다면, 이복남의 경우 악기에 대한 음향적 이해 및 최옥삼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충족된 경우이다.

나효신의 <물결따라 흐르는 선율처럼>은 황병기류 그리고 악기의 음향적 차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산조’의 개념에 대한 이해 모두를 충실히 반영한 작품이다. 나효신의 작품은 작곡가가 황병기의 스승 김윤덕의 말을 빌어 프로그램 노트에 언급한 바와 같이, *꽃처럼 화사하지 않고 잎사귀보*

다는 가지, 가지보다는 줄기, 줄기보다는 뿌리가 실한 산조를 표방하며 추임새도 자제하며, 천천히 진행 30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새로운 음악이 전개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천천히 하나의 선율을 시작으로, 마치 고고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그 선율을 연주자들이 다른 지점에서 연주하고 도입부가 지나면 새로운 음악적 재료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빨라지는 흐름 속에 가락이 흐트러지게 되고 이렇게 가락이 흐트러질 때 타악기가 리듬패턴(장단)의 중심을 잡아주는 ‘산조’의 개념을 작곡가는 악곡에 구현하였다. 산조의 흐트러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자 한 나효신의 작품에서 타악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연주에 대한 아쉬움이라면 중심을 잡아야할 타악기(핸드드럼)가 핸드드럼의 타법이 가볍게 날아가듯 임팩트 없이 연주됨으로 인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 점이다. 또한 후반부에 핸드드럼이 독주로 이끌 때 가야금주자들의 가야금 연주가 아닌 손뼉치기로 장단을 맞추는 부분은 연주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임이 여실히 드러날 정도로 어색하였고 악곡에 손뼉장단을 넣은 작곡가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거듭 새 옷을 입기위해

이번 연주회로 총 5개 유과의 산조를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기회를 통해 가야금 산조에 앙상블이라는 새 옷을 입혀 ‘현대 산조’를 만들어 과거의 장르가 아닌 현재에도 새롭게 제시, 연주되고, 애호 받는 장르를 만들고자 한 의도와 시도는 일단 성공적이다. 이번 연주회 작품들에 대한 음반이 나오면 총 10개 작품의 음반이 완결되고, 이미 “산조탐닉” 프로그램은 2018년 6월 26일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젊은 음악가> 경기 가야금앙상블 - “산조 탐닉” 연주회를 통해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국악계에 찾아보기 힘든 실험적 정신과 이를 적극 체득하여 연주하고자

하는 앙상블 단원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기획 취지에 근거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프로그램에 올리기 위해 작품의뢰 및 선정의 폭이 다층적이고 폭 넓을 수 있도록 <경기가야금앙상블>에 대한 후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연주회의 편성이 연주장소인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의 음향환경에 너무나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연주장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너무 큰 편성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보다 현대적인 창작곡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연주의 경계를 확대시켜 전자음향 효과 및 가야금이 아닌 악기들의 음향까지 그 활용의 폭을 넓혀 협업의 가능성을 확대해 보는 것 또한 추구해볼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